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한다

무주군, 사업 신청~선정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 통합 시스템 운영

무주군이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주군은 "2026년 공모사업 추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선정 이후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운영에 본격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핵심으로, 공모 일정 공유, 사전 적정성 검토, 선정 이후 성과 점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수집과 기획 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해당 계획을 통해 공모사업 대응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한 안정적인 외부 재원 확보와 군정 주요 현안 및 중·장기 발전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공모사업은 군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주군의 여건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중앙부처, 도 공공기관 공모사업 총 62건에 대응해 이 가운데 50건이 선정되며 약 81%의

응답력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해당 계획을 통해 공모사업 대응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한 안정적인 외부 재원 확보와 군정 주요 현안 및 중·장기 발전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공모사업은 군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주군의 여건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중앙부처, 도 공공기관 공모사업 총 62건에 대응해 이 가운데 50건이 선정되며 약 81%의

높은 선정률을 기록했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통합 패키지 사업 △구천동 33경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 △도시재생 인형 사업 △지방소멸대응 기금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등 성과를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전라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새해를 맞아 지난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연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최훈식 장수군수, 시설 이용자·직원 격려·애로사항 청취

최훈식 장수군수는 새해를 맞아 지난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새해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도가 되는 한편 현장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9개소와 노인생활시설 3개소 등 총 12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보고, 또한 시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중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장수군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복지정책 개선과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나눔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다음달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됨 없이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687가구를 대상으로 57,352천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 또는 성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의 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수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과 지원을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새해를 맞아 지난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새해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도가 되는 한편 현장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9개소와 노인생활시설 3개소 등 총 12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보고, 또한 시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중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장수군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복지정책 개선과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나눔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다음달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됨 없이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687가구를 대상으로 57,352천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 또는 성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의 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수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과 지원을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작지만 강한 농업' 비전 실현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 교육과정 운영 계획 공개

무주군이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반딧불농업대학'의 2026년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반딧불농업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며, 올해 교육은 2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사과, 온라인 마케팅, 포도, 수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신청자가 많은 3개 과정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나머지 1개 과정은 지역 특화 작목 중심의 기술교육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작목별 재배 기술을 비롯해 농업 경영 전략, 유튜브 제작과 같은 디지털 홍보 역량 강화, 인공지능(AD)을 활용한 병해충 진단 및 실습, 현장 중심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기계 안전 사용과 농작업 안전 교육은 모든 수강생이 공통으로 이수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며, 접수는 2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영농능력향상도 조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이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반딧불농업대학'의 2026년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반딧불농업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며, 올해 교육은 2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사과, 온라인 마케팅, 포도, 수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신청자가 많은 3개 과정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나머지 1개 과정은 지역 특화 작목 중심의 기술교육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작목별 재배 기술을 비롯해 농업 경영 전략, 유튜브 제작과 같은 디지털 홍보 역량 강화, 인공지능(AD)을 활용한 병해충 진단 및 실습, 현장 중심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기계 안전 사용과 농작업 안전 교육은 모든 수강생이 공통으로 이수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며, 접수는 2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영농능력향상도 조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이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반딧불농업대학'의 2026년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반딧불농업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며, 올해 교육은 2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사과, 온라인 마케팅, 포도, 수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신청자가 많은 3개 과정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나머지 1개 과정은 지역 특화 작목 중심의 기술교육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작목별 재배 기술을 비롯해 농업 경영 전략, 유튜브 제작과 같은 디지털 홍보 역량 강화, 인공지능(AD)을 활용한 병해충 진단 및 실습, 현장 중심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기계 안전 사용과 농작업 안전 교육은 모든 수강생이 공통으로 이수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며, 접수는 2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영농능력향상도 조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개강식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교육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개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최훈식 장수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김승희 한국농수산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토마토 중급 △토마토 심화 △사과 다축·밀실 3개 과정에 대한 소개와 연간 일정 안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1개월간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토마토 중급 과정은 8개월, 토마토 심화 과정 및 사과 다축·밀실 과정은 9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전문 강사진의 지도하에 교육생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히 올해는 기초과정 교육 수요를 반영해 토마토 중급반을 신설하고 기존 심화 과정과 구분해 단계별 교육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 농군사관학교는 교육생들이 작목별 전문 기술과 현장 적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연구소-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업무협약

(재)진안홍삼연구소(이하 홍삼연구소, 소장 현동운)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하 치유원, 원장 김창현)은 28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상생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동운 홍삼연구소장과 김창현 치유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홍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운영 협력 △지역 특화 제품개발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계·활용 방안 마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 콘텐츠 활성화와 △지역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진안 홍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기능성과 가치를 산림치유 콘텐츠에 접목함으로써,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고도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가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유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재)진안홍삼연구소(이하 홍삼연구소, 소장 현동운)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하 치유원, 원장 김창현)은 28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상생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동운 홍삼연구소장과 김창현 치유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홍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운영 협력 △지역 특화 제품개발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계·활용 방안 마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 콘텐츠 활성화와 △지역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진안 홍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기능성과 가치를 산림치유 콘텐츠에 접목함으로써,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고도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가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유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소방서, 농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최근 장수군 관내에서 겨울철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역 내 화재 고리를 끊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이장단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농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급증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초기 대응이 어렵고, 지리적 특성상 소방서와 거리가 먼 마을이 많아 화재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수소방서는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 영향력이 큰 마을이장단과 어르신들이 모이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촌지역 주택화재 주요 사례 전파 △전선 기장관·화목보일러 등 겨울철 주요화재 원인별 예방 수칙 △농·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주요용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법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한기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 교육

진안군은 관내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농한기 경로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11개 읍·면 15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로당 이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감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겨울철 및 집단생활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노로바이러스, 결핵, 호흡기 감염병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손 씻기와 음식물 위생 관리, △결핵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기침 예방,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등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